**CR**(Checking the Reliability of news) **프로젝트 기획서:**시민 주도, 기사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플랫폼 구축

Checking, Citizen, Credibility, Critic,

Reliability, Review, Reader, Renew, Reform, Radar

(Citizen Reviewers, Critical Readers, Collective Reformers)

**<목차>**

**왜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는가?**

언론과 이데올로기

**1 언론은 어떻게 한국사회를 좀먹고 있는가?**

1-1 권력과 한몸이 되어

1-2 뉴스 가치 판단

1-3 선별 보도

1-4 취재 관행

**2 언론은 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2-1 유명무실한 강령과 준칙, 언론 윤리의 실종

2-2 조직 논리에 길들여진 기자들, 자율성의 실종

**3 누가 언론을 바꿀 수 있을까?**

3-1 자정 능력을 상실한 언론

3-2 전문가 비평의 한계

3-3 시민의 손으로

3-4 기사 품질 평가 플랫폼

**4 시민이 주도하는 언론 개혁, 어떻게 실현할까?**

4-1 기사 품질 측정의 어려움

4-2 AI 기반 평가 플랫폼의 원리와 설계

4-3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준

**5 집단적 상상과 실천으로!**

5-1 함께 만드는 평가 도구

5-2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5-3 작용과 반작용, 새로운 시나리오

프롤로그:

**왜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는가?:** 언론과 이데올로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경쟁 교육은 불가피하다."

“이념 갈등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복지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

"경제 성장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 의식 깊게 뿌리내린 통념과 고정관념...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교육을 통해 '교양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학습되고, 언론을 통해 내면화된다. 이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우리는 그 영향력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소수 독점 언론이 공급한 뉴스는 대중의 의식 깊이 스며들어, 일상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

그럼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다. SNS나 팟캐스트,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미디어 지형을 바꾸고 있으며, 뉴스에 대한 대중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 대중은 일방향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에 따라 능동적으로 뉴스를 선택 공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정보의 원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주류 미디어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유통되는 뉴스의 뿌리는 여전히 기성 미디어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SNS에서 소비되는 다수의 온라인 뉴스 역시 그 뿌리를 기성 미디어에 두고 있으며, 유튜브 콘텐츠도 자체적인 생산보다는 기존 뉴스의 재가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음에도 정보의 원천과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기성 언론의 지배력이 여전함을 의미한다. 결국 뉴스 흐름의 본류를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올 수 없다.

…

언론을 바꿔야 사회 통념, 고정관념, 이데올로기를 깰 수 있고, 다른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

**1 언론은 어떻게 한국사회를 좀먹고 있는가?**

1-1 권력과 한몸이 되어

뉴스타파의 다큐멘터리 <두 언론 이야기>는 한국 언론이 얼마나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신문사 사주 장남이 재벌기업 회장 딸과 결혼하고, 회장의 아들은 또 다른 족벌신문사 사주의 딸과 결혼하면서 권력자들 간에 이너서클이 형성된다. 이렇게 정치, 경제, 언론 권력자들은 서로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며 권력의 고리를 강화하고, 그렇게 한국 언론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 정치·경제 권력들과 긴밀히 유착된다.

언론 스스로 권력의 일부가 되었으니, 권력의 논리를 따르는 게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 기사 흐름을 보면 언론의 여론 조성, 정부의 정책 결정, 건설사의 이익 추구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권력의 유착 구조를 엿볼 수 있다.

언론사들은 친기업 성향 학자나 특정 기관 연구원의 목소리를 빌려 '공급 부족 문제'나 '규제 완화 필요성'과 같이 건설사들에게 필요한 뉴스로 여론을 몰아간다. 정부 관료들은 언론이 조성한 여론을 근거로 '재건축 조건'을 완화하거나, '민간 주도 공급'을 유도하며 건설사들에게 개발 관련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이 진행되면 건설사들은 대규모 분양 지면광고나 아파트 TV광고를 통해 언론사에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다. 이러한 '공생적 카르텔'은 경제권력의 이익과 정치권력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데, 언론은 이들을 매개하며, 자연스럽게 권력 네트워크로 편입된다.

이렇게 형성된 거대한 이익 동맹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한국 언론이 스스로 권력이 되어 권력 일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 구조의 문제를 직시해야 언론 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2 뉴스 가치 판단

언론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 대중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 중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하고 선별하는 과정이다.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전통적 기준으로 '시의성', '근접성', '최초성', '중요성', '특이성' 등이 언급되지만, 이러한 기준들이 가치 판단의 근거로 충분한지, 또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예를 들어, '중요성'이라는 기준은 누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인지, 어떤 맥락에서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그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공공성', '공익성'과 같은 공적 기준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의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도 가치 기준으로 세우기는 어렵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토록 모호한 상황에서 “이건 보도할 가치가 있고, 이건 아니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뉴스 가치 판단은 표면적으로는 객관성, 공익성 등 언론사 나름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정 과정은 정치·경제 권력과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원래부터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세상의 모든 언론은 언제나 같은 뉴스만을 전달할 것입니다. 다른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최초의 뉴스 가치가 발생하고, 이 가치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권력 배치 속에서 어떤 뉴스 가치의 체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뉴스 가치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회적 권력은 유동적인 뉴스 가치를 고정하려 합니다. 마치 자신을 왕이라 믿는 왕이 계속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뉴스가 될까』 89p

이처럼 뉴스의 가치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안이 뉴스로 다뤄질 때, 우리는 그 배경에 작동하는 권력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1-3 선별 보도

모든 뉴스 보도는 본질적으로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어떤 사안을 중요한 주제로 설정할지는 보도국 협의, 데스크의 판단과 같은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의제 설정'이라는 강력한 힘을 통해 특정 사안을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시키거나, 배제시키며 여론의 방향을 결정한다. 특정 사안을 다루거나 다루지 않는 방식, 그리고 그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선택 과정은 명확한 가치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우리 언론이 모호한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반대로 보도가치가 크지 않은 사안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선별 보도'를 반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선별적 보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공중파 저녁 뉴스에서 동물원 곰 부부의 출산 소식이나, 희귀 심해어의 해안 출몰과 같은 가십성 뉴스를 방송 앞 부분에 주요 뉴스로 다루는 것은 뉴스 가치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설이나 논평,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 글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하나의 사건도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보도한 단면적 사실을 다시 근거로 삼아,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한다. 사설이나 칼럼의 권위적 논조, 계몽적 태도는 글의 논리적 완결성과 별개로 독자가 다른 관점을 떠올리기 어렵게 한다. 이런 '큰 목소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중이라면 특정 이익집단의 관점을 '보편적 상식'으로 여기기 쉽다. 그 결과 이러한 잘못된 상식은 사회적 통념과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결국 지배 이데올로기를 더욱 견고하게 한다.

1-4 취재 관행

앞서 언급한 한국 언론의 구조적 문제들, 특히 권력과의 유착, 선별적 보도는 실제 언론 현장에서 온갖 '나쁜 저널리즘'의 형태로 반복된다. 이러한 관행들은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나쁜 저널리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기업이나 기관의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전달하는 '보도자료 저널리즘'은 기자의 비판정신을 무디게 하고, '출입처 저널리즘'은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기 쉬우며, '포털 저널리즘'은 은밀한 뉴스 큐레이션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경마식 보도', '물타기 보도' 등 무수히 많은 보도 관행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행들은 기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언론의 구조에서 비롯된 병증에 가깝다. 이들이 반복되고 만성화되면서 언론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율성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2 언론은 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2-1 유명무실한 강령과 준칙, 언론 윤리의 실종

언론사회에는 '기자윤리강령'을 비롯해 다양한 강령, 준칙, 요강, 헌장 등 수많은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침들은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를 출고하기 전 이러한 지침들을 살펴 기사를 다듬는 기자가 대체 몇이나 될까? 만약 기자들이 기사를 내보내기 전, 해당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놓고 기사를 꼼꼼히 살핀다면, 앞서 언급한 '나쁜 저널리즘'이 지금처럼 관행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종 윤리 지침과 가이드라인들이 있음에도 대부분 유명무실화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언론 종사자들이 이러한 지침들을 형식적으로만 대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기준으로 여겨, 애초부터 실천 의지를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경향신문이 65주년 1면에 '기자윤리강령'을 전면 프린트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었다. 해당 지면의 기획자 이제석은 "이 구닥다리 문서가 언론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이전에 스스로는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기자 개개인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도 일회적 이벤트로 반짝 화제가 되었을 뿐, 여전히 나쁜 저널리즘은 반복되고 있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2 조직 논리에 길들여진 기자들, 자율성의 실종

언론사가 권력과 유착되면서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권력의 의중에 맞게 취재 방향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기사가 작성된다. 이는 언론사 바깥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제약이다.

언론사 내부는 수직적 위계 구조가 기자들의 자율성을 제한한다. 기자들은 뉴스 가치를 판단하고 취재 아이템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설령 의미있는 사회적 의제를 발굴해 취재를 시작하더라도, 데스크를 거치며 기사가 힘을 잃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취재 아이템이 반려되거나 축소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젊은 기자들은 처음의 정의감을 잃고 점차 조직의 논리를 내면화한다. 처음에는 데스크의 판단에 의문을 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기준이 '합리적'이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킨다. 결국 조직의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기자 개개인의 비판 정신은 무뎌지고, 언론의 핵심 기능인 ‘권력 감시’는 실종된다.

조직의 논리와 자신의 저널리즘 가치관 사이에서 끝내 타협하지 못하는 기자들은 결국 뉴스룸에서 배제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뉴스룸에 남은 기자들은 더욱 조직의 가치관에 동화된다. 이처럼 언론사 안과 밖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제약이 서로 맞물리는 상황에서, 과연 언론은 권력 감시라는 본질적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3 누가 언론을 바꿀 수 있을까?**

3-1 자정 능력을 상실한 언론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은 모호해졌고, 권력과의 유착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언론은 정파성에 따라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소수 기업의 이익을 다수 국민의 복리로 포장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나쁜 저널리즘'이라는 오명, '기레기'라는 멸칭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렇게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3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2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언론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윤리 강령은 형식적 선언에 그치고, 대다수 기자들은 조직 논리에 길들여져 그저 생활인으로 안주하고 있다. 언론사 안과 밖, 조직 구조 위아래 어디에도 내부 혁신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3-2 전문가 비평의 한계

언론이 권력과 유착되어 있어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언론은 대체 누가 감시해야 할까.

‘미디어오늘’과 같은 비평 전문지부터 ‘미디어포커스’와 같은 방송 비평 프로그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과 같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리포트까지,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비평이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개별 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시간을 두고 특정 사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도 추이와 경향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까지 깊이있게 들여다보며 기사의 맥락을 해설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 비평만으로는 오늘날의 복잡한 미디어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24시간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모든 보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비평과 실제 보도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커질수록, 비평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언론사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편향성 탓에 비평 자체가 정파적으로 비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정밀하고 중요한 비평조차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3-3 시민의 손으로

그동안 언론 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언론사 소유구조 개선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같은 제도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언론의 실질적 변화는 그들이 생산하는 '기사' 자체에 대한 세밀한 평가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언론 바깥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하다. 독자들이 주체가 되어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일상에서 우리가 상품의 쓰임새를 꼼꼼히 따지듯, 뉴스와 기사라는 '정보 상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 기사는 어떤 보도 가치가 있지?”  
“누구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 거지?”  
“이 주장의 출처는 어디이고, 누구의 목소리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개별 기사의 오류를 짚어내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기자와 언론사에 더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3-4 기사 품질 평가 플랫폼

언론 바깥에서 기사라는 언론상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안한다. 언론 안팎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기사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언론사들이 나쁜 저널리즘 관행을 고치거나, 기자들이 각성되지는 않겠지만, 낮은 평가가 지속되면 이를 지켜보던 독자들이 먼저 각성하고 언론사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동안 '나쁜 저널리즘'에 따라 작성된 기사를 보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해 답답해하던 독자들... 이들에게 기사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분석해 보여주고, 그 기사의 생산자에게 품질을 따져 물을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익명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신뢰도 평가에서 마이너스 3점!."

"기사 후반부에 무주체 피동형 표현인 '알려졌다', '전해졌다'가 거듭 사용되므로, 객관성 항목에서 감점."

"기자의 실명이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기본점수에서 2점을 감점함."

평가 점수와 함께 제공될 상세 리포트를 읽고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며, 점차 함량 미달 불량기사를 감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는 시민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레 언론을 감시·견제하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4 시민이 주도하는 언론 개혁, 어떻게 실현할까?**

4-1 기사 품질 측정의 어려움

기사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오랫동안 언론학계의 난제로 여겨져 왔다. 독일 언론학자 스테판 루쓰Stephan Russ-Mohl는 "저널리즘의 질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벽에 못으로 푸딩을 고정시키려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기사의 품질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측정하기 어려운지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기사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와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영미권 언론학계를 중심으로 취재원의 수와 투명성, 관점의 다양성, 이해당사자의 범위 등을 계량화한 품질 평가 지표 개발이 시도되었고, 이후 한국에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푸딩의 비유로 저널리즘 품질 측정의 어려움을 지적했던 스테판 루쓰는 품질 측정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몇 가지 단서를 달아 놓았다. "푸딩과 달리 저널리즘의 질은 고정시킬 수 있다. 단지 접착제로 쓸 많은 지적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그의 말대로 품질 측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는 언론학을 전공한 연구원들이 직접 기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출처, 익명취재원의 수 등)을 하나하나 카운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은 정확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연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는 어렵다.

…

그러나 최근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 특히 거대언어모델(LLM)의 등장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설 길이 열렸다. 고급 인력이 수행하던 복잡한 분석 작업을 LLM이 대신할 수 있게된 것이다. 이는 기사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구들을 활용해 '푸딩을 벽에 고정시키는' 불가능해 보이던 작업을 현실화하려 한다.

4-2 AI 기반 평가 플랫폼의 원리와 설계

앞서 논의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상용 LLM의 API를 활용한 웹 애플리케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오픈소스 LLM을 파인튜닝한 맞춤형 평가 시스템이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지만, 플랫폼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같다.

먼저 뉴스 소비자가 특정 기사 링크를 넣으면, 시스템이 해당 기사가 분석 가능한 유형인지 빠르게 판단한다. 예를 들어, 스트레이트 뉴스나 해설 기사는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칼럼이나 각종 리뷰기사는 제외되는 식이다.

평가 대상으로 확인되면, AI가 취재원의 다양성과 신뢰성, 정보의 균형성, 기사 구조의 완결성, 문장의 객관성 등을 꼼꼼히 체크해 그 기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알려준다. 결과는 마치 음식의 영양 성분표처럼 소비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해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익명취재원 발언이나 무주체 피동형 문장 위에 빨간색 밑줄이 그어지면서 구체적인 교정 멘트가 표시되게 하거나, 리포트 끝에 방사형 레이더 차트로 기사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한눈에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입력한 기사가 분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평가를 마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뉴스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기사의 유형과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학습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도구의 성공적인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을 넘어, 저널리즘의 본질과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4-3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 언론 관행에서 탈피한, 객관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PEJ)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참고하되, 한국의 언론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취재원의 다양성과 투명성, 객관적 언어 사용 등 기사의 신뢰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된다. 더불어, 기존의 언론 윤리 강령과 보도 지침들을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평가 도구로 재구성할 것이다.

특히 기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훼손하는 무주체 피동형 문장, 익명 취재원의 과다 사용,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사용 등을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다. 또한 출입처 제도로 인한 획일화된 보도, 보도자료에 의존한 기사 작성,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편향된 보도 등도 평가 대상으로 주의 깊게 다룰 계획이다.

우리는 기존 언론 환경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기성 언론인들이 가진 관행적 시각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 활동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교육 개혁가, 인권 활동가, 대안 경제학자… 평소 언론의 '나쁜 보도'로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을 이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다. 이들이 꼽은 전형적인 '나쁜 기사' 사례를 함께 분석하며, 그 속에 내재된 문제적 보도 관행과 기법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5 집단적 상상과 실천으로!**

5-1 함께 만드는 평가 도구

이 프로젝트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눈여겨왔던 '나쁜 뉴스' 사례를 공유하며 시작한다. 언론 바깥,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경험한 문제적 보도 사례들, 일종의 '나쁜 뉴스'들을 모아 분석한다. 해당 기사가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살피고, 그러한 문제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실효성있는 평가 기준을 찾아낸다. 마지막으로 기사별 평가 기준들을 모아 종합적인 뉴스 품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5-2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기존 미디어 비평이 가진 주관성과 정파성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뉴스 분석이 가능한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며, 현재 다양한 기술적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 모델 선택과 관련해, 안정적인 상용 API 사용과 독립적인 sLLM(경량화 LLM) 운용 사이에서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방식을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웹앱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 개방성, 확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필요하다. 즉,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명확한 시각화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만든다. 또한 문제적 보도 사례를 아카이빙하고 토론하는 커뮤니티 기능을 마련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코드를 공개해 기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설계한다. 나아가 사설·칼럼 분석 웹앱이나 영상 뉴스 모니터링 서비스 등 다양한 버전의 미디어 비평 웹앱 개발이 이어지면, 독립된 플랫폼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비영리를 철저히 고수한다.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시민 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불가피한 운영 비용은 정밀한 과금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이 직접 부담하게 하며, 전체적인 운영은 최소한의 자발적 참여 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프로젝트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다.

5-3 작용과 반작용, 새로운 시나리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먼저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 과제들이 있다. 다양한 유형의 기사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개발하는 것, AI 기반 평가 시스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밖으로는 기성 언론의 저항,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언론 권력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주류 언론은 이 시스템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AI 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기계적 평가'의 위험성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개별 기사를 평가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이 플랫폼을 통해 개별 기사들이 얼마나 저널리즘 원칙을 외면한 채 관성적으로 작성되고, 또 조직적으로 반복되면서 관행으로 굳어지는지 드러낼 것이다. 축적된 데이터는 비평 아카이브로, 시민들의 미디어 문해력을 높여줄 것이다. ‘수동적인 뉴스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언론 사용자'로 각성한 시민들이 직접 기성 언론에 변화를 요구하는 시나리오 … 나아가 칼럼 분석, 영상 뉴스 평가 등 다양한 미디어 감시 플랫폼으로 확장되며, 시민 주도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 플랫폼이 만들어낼 ‘연쇄 효과’를 기대한다. 이용자들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피드백하거나, SNS로 공유하며,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비평 문화를 형성할 것이며, 언론사들도 이러한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 .

우리의 플랫폼이 그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더 나은 저널리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시민들이 권력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론장의 주체가 되는 순간,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 여정은 우리 모두의 집단적 상상력과 실천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프로젝트 로드맵]**

기본 흐름:

사전 준비 단계에서 ‘최초 기획자’가 ‘기술 기획자’와 협의해, 전문가/자문단이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을 마련한다. 이 프로젝트에 공감할 만한(동시에 기성 언론의 보도행태에 염증을 느끼는,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저널리즘 관행에서 자유로운) 전문가 그룹이 ‘온라인 소통 공간’에 들어온다. 최초의 전문가 그룹(시민이면서 전문가인)이 모이고 연결되면, 이들이 ‘뉴스/기사 평가 기준/방식’과 ‘기술적 구현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기사 품질을 평가할지, 필요한 AI 모델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 제반 사항을 하나씩 합의한다. 평가 기준과 구현 방식이 구체화되면, 1.5단계에서 ‘법률 전문가’, ‘경영 전문가’, ‘캠페인 전문가’가 참여해 프로젝트를 현실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 여러 차례의 수정과 피드백을 거쳐, 2단계에서 프로토타입을 완성, 베타테스트를 거쳐 2.5단계에 정식 서비스까지 완료. 이후 홍보 과정과 캠페인을 거쳐 이슈화 하고, 순차적으로 ‘제3비평 그룹’에서 다양한 평가 플랫폼을 개발하도록 지원. 그렇게 연대와 확장을 거듭하며 최초의 기획 의도(언론 개혁)를 달성한다.

정리하면

0단계: 사전 준비 단계. ‘최초 기획자’와 ‘기술 기획자’가 협업해 전문가/자문단이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을 마련.

1단계: 온라인 소통 공간에 전문가 그룹, 최초 시민 그룹이 모여 ‘뉴스/기사 평가 기준/방식’과 ‘기술적 구현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구체적인 방식과 자원 합의.

1.5단계: ‘법률 전문가’, ‘경영 전문가’, ‘캠페인 전문가’가 참여해 프로젝트를 현실적으로 수정

2단계: 프로토타입을 완성, 1차 출시. 베타테스트.

2.5단계: 정식 서비스 론칭. 캠페인. 다양한 서드 플랫폼 개발 지원 및 연대.

\_\_\_\_\_\_\_\_

**0 단계.**

**- 저널리즘 비평 관련 도서 및 연구 논문 추가 정리. 평가 기준 초안 작성**

**- 유사 프로젝트(Deepnews.ai, The Factual, 뉴스트러스트 등)의 기술 스택, 평가 방식, 운영 모델을 분석**

**- 기술 스택 초기 검토: 상용 LLM API(예: OpenAI GPT)와 오픈소스 LLM(예: DeepSeek-R1, Llama 3, Mistral 7B v2, KoBERT(마지막 공식 업데이트 2021년 2월 15))의 장단점을 비교**

**- 학습용 데이터 파악(뉴스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확보. AI Hub 공개 데이터셋, 국립국어원 말뭉치 등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성을 파악).**

**(최초 기획자(나, 작성자 본인), '기술 기획자'와 협의, 필요한 리소스 확인. 기술적 타당성 검토. 프로젝트 로드맵 재설계)**

**-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최초 기획자와 기술 기획자가 협력하여 전문가/시민 그룹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예: 슬랙, 디스코드, 전용 포럼)을 개설). 문서 공유 및 협업 도구 세팅 (Notion, Google Workspace).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AI/NLP 기술 전문가, 교육, 인권, 경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프로그래머, U/X디자이너, 캠페이너 등 온라인 소통 공간에 참여.**

**1단계.**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저널리즘 관련 내용과 기술적 사안들 협의)**

**- 나쁜 저널리즘 사례 수집. '나쁜 저널리즘' 사례를 모아, 한국 언론 환경에 맞춘 정량화 가능한 지표(예: 취재원 투명성, 객관적 언어 사용)를 개발.**

**- 다양한 전문가 시민이 모여, 뉴스 품질 평가 기준과 기술 방식을 합의.**

**품질 평가 기준을 구체화. 평가 체계 설계 평가 항목(취재원의 다양성과 투명성 등 정량화 가능한 지표 망라) 도출.**

**-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확보. 데이터 수집 및 모델 개발 전략 수립.**

**뉴스 기사 데이터를 크롤링하거나 공개 데이터셋으로부터 수집. 수집된 데이터는 전처리(중복 제거, 형식 통일 등) 및 정제 작업.**

**- 시민 참여형 라벨링: 정립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롬프트 기반 평가 텍스트를 작성.  
(다양한 평가 기준을 프롬프트로 정제해 가벼운 포맷의 조각 파일로 배포,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다양한 챗봇 서비스를 통해(혹은 API를 통해) 테스트 프롬프트(평가 기준) 개량. 가령 '기사의 유형을 구분하는 프롬프트'나 '무주체 피동형 문장 감지 프롬프트'와 같이 다양한 조합의 프롬프트를 활용해 다수의 시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테스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경우 자발적으로 프로젝트 페이지에 업로드. 검수 후 평가 기준으로 업데이트.)**

**프롬프트 조각 파일을 통한 테스트는 '모델 초기 테스트' 기능도 겸할 수 있음. 작은 규모의 데이터로도 평가 지표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확인하여 알고리즘의 방향성을 가늠.**

**- 기술 스택 검토 및 선정. 시스템 아키텍처 초안 설계**

**AI 모델(오픈소스 LLM 파인튜닝 vs 상용 API),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 방식을 결정.**

**백엔드/프론트엔드/데이터베이스 기술 선정(예: FastAPI 백엔드, React 대시보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1.5단계.**

**- 법률 자문: (1)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이슈 점검. 특히 개발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크롤링) 관련 법적 이슈 검토. (2)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 방안 수립. (3) 뉴스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법적 이슈를 검토. 특정 언론사나 기사를 평가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

**- 경영 자문: 최초 개발 단계 비용, 펀딩이나 후원 유치 필요 여부 확인. 비영리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예산 계획(최소 운영 비용 산출 및 조달 방안 마련). 운영 모델(비영리 구조, 과금 시스템) 설계.**

**- 홍보: 프로젝트의 취지와 가치를 알리고 초기 베타 테스트 참여자를 모집.**

**- 캠페인: 타겟 사용자 정의 및 메시지 개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평가 결과 SNS 공유 기능 등).**

**2단계.**

**프로토타입 개발.**

**-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콘텐츠와 데이터의 속성에 맞는 시스템 다양한 조합 확인. 예) React 대시보드 + FastAPI 백엔드 + PostgreSQL DB = 백엔드는 파이썬 기반의 FastAPI 등으로 웹 서비스 API를 구축, 프론트엔드는 React 등으로 웹/모바일 앱 대시보드를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 등을 사용해 평가 데이터와 유저 데이터를 저장. 그밖에 2~5안 정도 다른 다양한 조합 검토.**

**- 품질 평가 모델, 평가 알고리즘 개발: 수집한 라벨링 데이터를 활용해 선택한 LLM을 파인튜닝하거나, 필요시 커스텀 모델을 설계. 모델이 기사 텍스트를 입력받아 평가 점수와 근거를 산출하도록 함.**

**- 품질 평가 모델 구축: 시민 참여 프롬프팅 테스트로 평가 데이터 축적, 전문가 자문단이 최종 라벨링 수행. 기사 크롤링 및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 인터페이스 구현: 사용자에게 평가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UI/UX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기사별 점수를 그래프로 시각화하거나, 강조표시를 통해 어떤 부분이 점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화형 UI로 제공합니다.**

**- 베타 테스트 및 성능 평가: 내부 테스트를 거친 후 베타테스트를 실시. 다양한 배경의 사용자가 플랫폼을 사용해 평가를 시도하도록 하여 피드백을 수집. UI 불편 사항, 평가 오류 사례 등을 취합하여 개선에 반영.**

**- 기타. (브라우저 확장 기능 개발: 뉴스 접속 시 실시간 품질 점수 표시)**

**2.5 단계.**

**플랫폼 정식 론칭 및 관리, 이슈 파이팅.**

**- 홍보/캠페인: 특정 주제/이슈 집중 모니터링 캠페인. 시민단체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교육, 워크숍 개최 등으로 플랫폼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

**- 경영: 운영 비용 관리. 기타 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어 문제적 보도 사례 공유 커뮤니티 운영.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콘텐츠 제공.**

**- 기술 관리: 시스템 관리 인력 확보. 알고리즘 개선 및 LLM 업그레이드. API 오픈소스화: 평가 엔진 공개(GPL 3.0 라이선스) -> 서드파티 웹앱 개발 유도/지원 및 연대.**

필요 사항 목록

* 다양한 분야(교육, 인권, 경제 등) 전문가 자문단 구성
*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검증
* AI/ML 엔지니어 및 개발자 참여
* UI/UX 디자인
* 기사 데이터셋 확보/구축
* 다양한 매체와 기사 유형을 포함한 테스트
* 피드백 수집 및 분석 도구
* 안정적인 운영 인프라
* 사용자 지원 및 커뮤니티 관리 체계
* 지속적인 개발 및 유지보수 인력
* 확장 버전 인큐베이팅을 위한 기술 지원
* 관련 단체 및 유사 플랫폼과의 네트워킹

유의 사항:

*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 지속적 모니터링
* 기술 발전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
* 언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유지

(초창기) **핵심 인력 구성:**

* 기획자(프로젝트 매니저 역할. 전체 참여 시민 의견 조율.)
* 미디어 전문가((기자, 피디 등 전현직 언론 종사자를 제외) 미디어 비평 + 언론학 + 경제/정치/사회 전영역에 걸쳐 실제 활동하는 교육자, 인권활동가, 대안경제학자 등 언론의 섞은 관행에 남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미디어 전문가' 4인 이상.)
* AI전문가(AI/ML 엔지니어 + 자연어처리 전문가 + 프롬프트 엔지니어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_를 겸할 수 있는 전천후 ‘AI 전문가’ 2인.)
* 플랫폼 개발자(시스템 아키텍트 + 웹 개발자(프런트/백엔드) + 정보보안 전문가 + UI/UX 디자이너\_를 겸할 수 있는 전천후 ‘플랫폼 개발자’ 2인.)
* 법률 지원 조력자(저작권법에 해박한 법률가 + 정보인권 관리자 + 경영관리에 이해도가 높은 ‘법률 지원 조력자’ 1인.)
* 경영 지원 조력자(경영 및 조직 운영 전문가 + 재정 전문가\_를 두루 겸할 수 있는 전천후 ‘경영 지원 조력자’ 1인.)
* 캠페이너(홍보 전문가 + 마케터 + 캠페이너 + 커뮤니티 매니저 + 미디어 교육 전문가 1인.)

참고/레퍼런스\_ 동일한 주제, 비슷한 컨셉트 프로젝트들.

[**The Factual**](https://www.rand.org/research/projects/truth-decay/fighting-disinformation/search/items/the-factual.html) (미국)(뉴스 기사 평가 플랫폼으로, 알고리즘을 통해 개별 기사에 \*\*신뢰도 점수(1~100점)\*\*를 부여) (2022년 야후(Yahoo)에 인수) (사이트 품질, 저자 전문성, 출처의 질, 기사 어조의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 (예를 들어, 기사에 인용된 출처의 수와 신뢰성(권위 있는 매체 인용 여부), 저자의 경력(전문 기자 여부), 어조(의견이 얼마나 개입되었는지) 등을 파악)

[\*\*Deepnews.ai](http://deepnews.ai/) 프로젝트\*\* (약 5만 개의 뉴스를 15점으로 직접 또는 간접 라벨링, 80~90% 수준의 정확도로 기사 품질 등급을 예측) (NLP 알고리즘은 기사의 텍스트 내용을 분석하여 “독창적인 보도 여부, 출처의 신뢰성, 심층 분석 여부” 등의 저널리즘 신호를 포착하고 15점의 품질 점수를 산정)

**~~Seekr~~** (대형 언어 모델(LLM)과 NLP를 활용해 기사의 신뢰성을 1~100 점 사이의 “종합 품질 점수”로 산출) (저널리즘 표준, 편향 여부, 분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클릭베이트 표현, 인신공격, 지나친 주관성 등의 요소도 점수 산정에 반영)

[**Journo AI**](https://www.journo.ai/) (기사 품질 평가, 금융 저널리즘에 특화)(사실 정확성, 명확성, 객관성, 분석 깊이, 관련성, 뉴스 가치, 글쓰기 스타일, 금융 보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포함)

Duke University의 [**News Quality Scoring Project**](https://www.sharednation.org/products/newsqualityscoringproject) (학술 연구용 오픈소스 프로젝트 형태. GitHub에서 Python 코드 공개 및 평가 데이터셋 제공.) (신뢰도 지표(출처 명시성, 다각도 취재 등)를 자연어 처리(NLP)로 계량화)

[**뉴스트러스트**](https://blog.naver.com/kpfjra_/221297409229) (2018년 알고리듬 공개 후, 포털뉴스배열에 적용... 정도)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올해 8억5700만원의 예산을 들인 사업)(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에 있는 현직 언론인 8명, 언론학자 7명 등 모두 15명으로 이뤄진 ‘뉴스트러스트위원회’ 출범. 위원회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자동으로 뉴스를 평가하는 ‘뉴스 계량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개별적인 뉴스 콘텐츠가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갖췄는지 계량적으로 평가해낼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단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수의 안을 만들고, 여기에 쓰인 평가 근거와 소스코드 등을 모두 공개해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 (2018.04.12 뉴스트러스트 알고리즘 공개\_깃허브<https://github.com/KPF-NEWSTRUST>)

[**The Trust Project**](https://thetrustproject.org/)의 신뢰 지표 시스템 (전문가 기반 평가 체계(저자 배경 공개, 증거 제시 등)를 AI로 스코어링)

[**Credder**](https://www.getcredder.com/) (미국) (군중 참여형 뉴스 신뢰도 평가 플랫폼) (으로, 기자와 일반 독자의 리뷰를 모아 기사별 신뢰 점수를 매기는 웹 서비스)

NewsGuard의 '[Reliability Ratings](https://www.newsguardtech.com/solutions/news-reliability-ratings/)' 서비스 (뉴스 신뢰도 평가 플랫폼.)

[**Factmata**](https://www.nesta.org.uk/feature/ai-and-collective-intelligence-case-studies/factmata/) (영국)(온라인상의 부정확하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발견하고 신뢰도 평점을 매기는 B2B 솔루션)

[**Factiverse**](https://www.factiverse.ai/) (AI 기반 팩트체크 도구.)

[**Media Bias**/**Fact Check**](https://mediabiasfactcheck.com/) (MBFC) (편향성 평가에 LLM 도입.)

[**ETS e-rater**](https://www.kr.ets.org/erater/about.html) (논술 채점)

[**Grammarly**](https://www.grammarly.com/)의 AI 작문 평가 시스템 (문법 검사 + 어조 분석.)

[**Turnitin** AI Writing Detection](https://www.turnitin.com/solutions/topics/ai-writing/) (표절 검사: BERT 기반)('무주체 피동형 패턴' 탐지에 활용 가능) [**ProWritingAid**](https://prowritingaid.com/) (문법 체크, 가독성 검사, 그밖에 글쓰기 전반 평가 피드백) [**Originality.ai**](http://originality.ai/) (가독성 점검 기능)

참여인력 구성 개요(일단 최소 인원으로)

각 그룹을 개인 전문가 직함으로 재구성.  
(법률, 경영 분야는 일시적으로 결합/참여, 조언/자문을 구할 예정)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 각 부문 별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방식 (그야 말로 일당백, 소수 정예).

저널리즘 영역을 담당할 사람으로 '**미디어 전문가** 시민 A님', 기술 영역에 **'AI 전문가** 시민 B님'과 '**플랫폼 개발자** 시민 C님', 경영 관리 영역에 '**법률 지원** D님'과 ‘**경영 지원** F님’, 캠페인/홍보 마케팅 영역에 '**캠페이너** 시민 G'님... 식으로 호칭함.

분야별 활동 영역(=맡아야 하는 역할)은 아래와 같음. 활동 분야 명칭은 각자 선호하는 이름으로 변경해 사용해도 됨.

### 1. 저널리즘 영역

**"미디어 전문가"**  \_호칭은 “뉴스 품질 평가 부문 참여 K님”으로.

* 구성: 언론 종사자를 제외한, 활동 부문 전문가 + (제한적으로) 미디어 비평가와 전직 언론인 (언론학자 + 미디어 비평 전문가 + 저널리즘 실무 전문가), 현직 언론인(기자, 칼럼니스트, 논설위원) 제외.
* 역할: 기사 품질 평가 기준 개발, 나쁜 저널리즘 사례 분석, 평가 방법론 설계
* 이점: 학술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결합한 균형 잡힌 품질 지표 개발 가능

### 2. 기술 영역

**"AI 전문가"**  \_호칭은 “AI 전문가 E님”으로.

* 구성: AI/ML 엔지니어 + 자연어처리 전문가 + 프롬프트 엔지니어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역할: 품질 평가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처리, 모델 훈련 및 최적화
* 이점: 언어모델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역량 보유

**"플랫폼 개발자"** \_호칭은 “플랫폼 개발자 X님”으로

* 구성: 시스템 아키텍트 + 웹 개발자(프런트/백엔드) + 정보보안 전문가 + UI/UX 디자이너
* 역할: 웹 플랫폼 설계 및 구축, 사용자 경험 최적화, 보안 체계 수립
* 이점: 기술적 설계부터 사용자 경험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플랫폼 구축 능력

### 3. 관리 영역

**"법률 지원", "경영 지원"**  \_호칭은 “법률 지원 M님”, “경영 지원 J님”으로

* 구성: 경영 및 조직 운영 전문가 + 재정 전문가, 법률가 + 정보인권 관리자
* 역할: 프로젝트 전략 수립, 법적 위험 관리,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개발
* 이점: 비영리 프로젝트의 장기 생존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관점 제공

**"캠페이너"**  \_호칭은 “캠페이너 H님”으로

* 구성: 홍보 전문가 + 마케터 + 캠페이너 + 커뮤니티 매니저 + 미디어 교육 전문가
* 역할: 사용자 참여 유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회적 영향력 확대
* 이점: 시민 참여와 교육을 통한 플랫폼의 사회적 확산력 강화

각 전문가는 여러 영역의 기술을 통합하여 프로젝트에 기여하며, 필요에 따라 개인이 여러 역할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참여인력과 요청 사항

(= 어떤 분야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 어떠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미디어 전문가(역할 개요, 구체적인 활동 요청 사항)

2. AI전문가(역할 개요, 구체적인 활동 요청 사항)

3. 플랫폼 개발자(역할 개요, 구체적인 활동 요청 사항)

4. 법률 지원(역할 개요, 구체적인 활동 요청 사항)

5. 경영 지원(역할 개요, 구체적인 활동 요청 사항)

6. 캠페이너(역할 개요, 구체적인 활동 요청 사항)

----

**1. 미디어 전문가**

**역할 개요**

**평가 방법론 설계**(뉴스 분석 프레임워크 설계)

**기사 품질 평가 기준 개발 및 검증**(품질 측정을 위한 핵심 요소 정의)

* 기사의 품질과 신뢰도 관계
*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확인.
* 국내외 저널리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나쁜 저널리즘’ 사례를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정량적 지표(취재원 투명성, 객관적 언어 사용 등) 마련
* 기존 윤리 강령과 보도 지침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 항목 제시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력 나쁜 저널리즘 사례 분석**

* 문제적 보도(‘나쁜 뉴스’)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AI 모델 훈련에 적합한 라벨링 기준 확립
* 다수의 언론사·매체별 특징(방송/신문/인터넷, 종합/정치/경제/문화/스포츠…)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기사 샘플 구분

**프로젝트의 언론학적 타당성 검증**

(뉴스/기사는 취재와 편집의 결과물. 생산 과정을 거꾸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기사에서 (어떠어떠한) 문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경위로 생겨난 것인지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식료품 생산 공장, 공장의 위생을 문제 삼듯…)

**활동 요청 사항**

**‘나쁜 저널리즘’ 사례 수집 및 유형별 분류**

(‘나쁜 뉴스’가 생산되는 배경(맥락, 경위)을 유추, 분석)   
(+ 한국 언론 환경에서만 유독 도드라지는 유형들(예: 따옴표 저널리즘, 출입처 저널리즘 등)를 고려하여, '나쁜 저널리즘' 사례를 수집, 분석)  
(🡪 나쁜 뉴스들(유형별)이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해악이 있는 거지? 저널리즘적 가치를 실현사지 못하거나 오히려 훼손하는 경우. 저널리즘의 가치!)

**기존 언론 윤리 강령과 보도 지침 분석**

(기자협회, 언론재단, 각 언론사별 규범 체계)

**협회·언론사 규범체계를 실효성 있는 평가 도구로 재구성**(어떻게?)

이때 신뢰성 관련 요소도 정의해 포함시킨다.

**정량화 가능한 기사 품질 평가 지표 개발**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PEJ)의 평가 기준 포함, 기사의 다양성, 투명성, 정확성, 맥락 제공 등 품질 요소의 정량화. 추가로 한국 언론 환경에 맞는 저널리즘 평가 지표 설계

**평가 지표 검증**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제안된 평가 기준(항목·점수체계)을 실무적인 시각에서 검수·수정

**기사 유형별 평가 방식 차별화**

스트레이트/해설/칼럼, 정치/경제/문화/…/스포츠 등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 방식 고민)

**기존 미디어 비평 플랫폼 분석 및 차별화 전략 수립**

**AI 모델 프롬프트 문항 검토**

모델이 뉴스 기사를 정확히 분석하도록, 평가 지표에 대응하는 문항·지침 자문

**평가 결과의 시각화**

사용자 친화적 표현 방식 제안

**정기적인 품질 측정 결과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

**2. AI 전문가**

**품질 평가 알고리즘 설계**

* 취재원 신뢰도, 익명 소스 사용 빈도, 객관적 언어 비율 등 다양한 정량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NLP) 알고리즘 및 언어모델(LLM) 구조 설계
* LLM 파인튜닝 혹은 상용 API 활용 전략 등 기술적 의사결정 주도

**데이터 수집·처리 파이프라인 구축**

* 학습 데이터셋 구축. 뉴스 기사(텍스트 데이터) 대량 크롤링 및 전처리, 라벨링 자동화·반자동화 도구 개발.
* 평가 모델 정확도 검증을 위한 샘플링 및 피드백 루프 설계

**성능 최적화 및 유지보수**

* 모델 성능(정확도, 일관성)을 모니터링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업데이트 주기 결정
* 플랫폼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마련

**AI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 검증**

**활동 요청 사항**

**미디어 전문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의 알고리즘화**

**기존 AI 기반 뉴스 평가 플랫폼(Deepnews.ai, The Factual 등) 분석 및 벤치마킹**

**기사 품질 평가를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특정 평가 기준만 적용된 프롬프트 조각을 개발/배포해 이용자들이 챗봇에서 기사를 붙여 테스트(시민 참여형 프롬프트 테스트)하거나, 오픈AI 플레이그라운드, 클로드 콘솔 등의 API를 사용해 개별적으로 실험하며 결과를 중앙에 공유할 수도 있음. 축적된 평가 결과를 추출해, 평가 알고리즘에 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데이터 전처리·학습 설계**

기사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토크나이징, 벡터화 등 NLP 파이프라인 고도화.

뉴스 데이터셋 확보를 위해 미디어 파트 참여자와 협의. 일단 기존에 패키징된 오픈 데이터(AI Hub, 국립국어원 말뭉치 등)를 수집·정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

**평가 모델 프로토타입 개발**

시범 단계부터 사용자의 입력 기사를 즉시 스코어링하고, 어떤 항목에서 감점이 이루어졌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현

**or LLM 모델 평가 및 최적 모델 선정**(상용 API vs 오픈소스 모델) 🡪 **품질 평가 모델 파인튜닝 및 성능 최적화**

**하이브리드 평가 방식 고려**

‘규칙 기반 피처’와 ‘딥러닝 기반 분석’을 결합해, AI 모델이 편향 없이 기사 품질을 평가하도록 설계

**모델 진단 및 재학습**

사용자 피드백(오류 지적, 모델 개선 요구)에 따라, 모델을 주기적으로 재학습하고 파인튜닝

**AI 모델의 편향성이나 부정확성 등 기술적 한계를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수립**

**기술적 확장성을 고려한 API 설계 및 오픈소스화 방안 제시**

**평가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및 업데이트**

----

**3. 플랫폼 개발자**

**웹/모바일 서비스 설계·구현**

*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디자인, 평가 결과 시각화(점수 차트, 하이라이트) 등 전반적 플랫폼 기능 개발
* 백엔드 시스템과 AI 모델 연동(데이터베이스, API 연동)(확장성 있는 백엔드 설계: 평가 요청이 폭주해도 처리 가능하도록 서버·DB의 구조화)
* 보안 체계 설정

**시스템 아키텍처 최적화**

* 대량의 기사 분석 요청이 들어올 때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확장성 고려
* 오픈소스 커뮤니티 참여·협업을 위한 구조(코드 공개·포크·기여) 지원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정보(이메일 등)와 평가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법·규제 준수 및 접근 제어

**유저 피드백·커뮤니티 기능 구축**

* 평가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토론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 구현(예: 댓글, 리뷰, 게시판 등)
* 알림/공유 기능(기사 평가 스코어 SNS 공유 등)을 통해 프로젝트 확산 촉진
* 버전 관리·협업 지원: 깃허브 등 협업 툴 연동으로, 다양한 개발자들이 참여해 서드파티 앱/플러그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내

**활동 요청 사항**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백엔드/프론트엔드/데이터베이스)**

React 기반 프론트엔드와 FastAPI 기반 백엔드 시스템 개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AWS 또는 MS Azure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AI 모델 API 연동 기능 구현 및 성능 최적화**

**사용자 친화적 UI/UX 개발**

기사 URL 입력 및 분석 기능 구현(웹페이지 크롤링)

기사 크롤링 및 분석 파이프라인 개발

**평가 결과 시각화 도구 개발**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개발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부가 기능 개발(선택)**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반영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 기능 개발(문제적 보도 사례 공유 등)**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 안정성 확보 방안 수립**

플랫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

**4. 법률 지원 조력자**

**저작권·데이터 수집 관련 법률 자문**

* 뉴스 기사 크롤링·데이터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슈 및 현행 법규 검토
* 인용·재가공 범위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평가 결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최소화

**명예훼손·분쟁 소지 점검**

* 특정 기사나 언론사를 ‘저품질’로 평가할 때 생길 수 있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분쟁 가능성 사전 방지. 언론사 대응 전략 수립 지원
* 평가 점수와 해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의 표현 수위, 이의제기 절차 구축 자문

**개인정보 보호·약관 설계**

* 회원 가입, 데이터 처리, 보관, 제3자 제공 등 전반적 이용자 정보 보호 체계 마련
* ‘서비스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자문.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활동 요청 사항**

**데이터 취급 방침 수립**

기사 크롤링 데이터 수집의 법적 타당성, API 사용 시 저작권·저작인접권 문제가 없는지 검토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리스크 검토**

점수 공표가 특정 언론사·기자에게 법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가능성 검토

기사 품질 평가의 법적 근거 및 방어 논리 개발

언론사와의 잠재적 분쟁 대응 전략 수립

**프로젝트 운영 약관 마련**

서비스 참여자(평가자, 피평가자) 간 책임 소재와 분쟁 조정 절차 명문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자문**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GDPR(유럽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비영리 운영 구조에 적합한 법적 형태 제안**

재단·협회의 법적 지위 검토

비영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직 형태 설정(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자문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토 및 법적 준수사항 확인**

**평가 결과 공유, 공정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

**5. 경영 지원 조력자**

**예산 산출 및 재원 확보**

* 초기 개발·운영비(서버·인건비 등) 산출, 경우에 따라 펀딩(후원, 공익 기부 등) 또는 정부·재단 지원 프로그램 검토
* 투명한 회계 관리 체계 설계

**프로젝트 운영 모델 및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 비영리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 사이 균형 유지
* 장기 로드맵 수립, 필수 인력 확보 및 외부 협력 파트너십(시민단체, 교육기관 등) 지원

**활동 요청 사항**

**유사 프로젝트**(비영리 공적 플랫폼)**의 성공 사례와 경영 방식 공유**

**초기 비용 산정 및 조달 방법 논의**(초기)

각 단계(프로토타입, 베타테스트, 정식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 비용 산출  
구축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마련 방법(소액 후원, 크라우드펀딩 등) 제안

**예산 수립 및 집행 기준 마련**

완전 비영리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건별 과금 결제 방식, 과금 체계 고안.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 위한 로드맵 구체화, 단계별 실행 계획 확인. 일정 관리**(장기)

**조직 관리 체계, 성장 전략 설계**(추가 연계 프로젝트)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 최적화

인력(필요에 따라\_상근자·자원봉사자·커뮤니티 관리자 등) 운용 및 자원 배분 계획 수립

**위기 관리 및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협력 기관 및 후원자 지정 옵션 체크**

언론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관계

**성과 측정 지표 개발 및 평가 체계 구축**

----

**6. 캠페이너**

**사용자 참여 활성화 방안**

* 대중이 플랫폼을 쉽게 접하고, 평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마케팅·홍보 캠페인 기획
* 온라인/오프라인 미디어 채널을 활용, 프로젝트 취지와 가치를 폭넓게 알리는 전략 수립

**커뮤니티 구축, 관리 및 네트워킹**

* 온라인 토론의 장을 마련,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건강한 사용자 커뮤니티 조성

~~미디어 교육 단체, 시민단체, 학교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프로젝트 인지도와 신뢰도 확대~~

* ‘나쁜 저널리즘’ 사례 분석과 기사 품질 평가 활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뉴스를 검증·비판하도록 돕는 온라인 (…) 운영
* 플랫폼 이용법 및 기자·언론사 피드백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회적 영향력 확대**

* 프로젝트의 성과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캠페인.

**활동 요청 사항**

**프로젝트 핵심 메시지 및 브랜딩 전략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와 메시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플랫폼 홍보 캠페인**

프로젝트의 목적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사 품질 측정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

초기 베타 테스트 참여자를 모집하는 활동

다양한 채널(SNS, 미디어,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홍보

대중에게 친숙한 이슈나 키워드를 활용한 SNS·온라인 이벤트 기획

언론·팟캐스트·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하여, 프로젝트 활동 내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

**평가 결과 공유 시스템 설계 및 확산 방법론 개발**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초기(평가 데이터 없을 때), 중기(평가 데이터가 일정량 이상 축적되었을 시기), 안정기(축적된 평가 데이터를 정리)) 개발 공유 방법 모색

**플랫폼 활성화 방안**

타겟 사용자층 정의 및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플랫폼 사용자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제안(기여도 놓으 사용자에 대한 보상·인정 시스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제안**

시민들이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동시에 미디어 비평 커뮤니티 기능을 하는 온라인 공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제적 보도 사례 공유 기능

플랫폼 내에 ‘참여 후기’나 ‘평가 결과 공유’

평가 항목과 실제 기사 사례를 연계해, 초보 사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

언론 분야 시민단체, 언론학계 등과 연대·협력 방법 모색

**성과·영향력 측정 및 보고**

프로젝트의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플랫폼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 구축

캠페인 활동 전·후 이용자 수, 평가 참여도, SNS 언급량, 이용자 리뷰 정리 공유

**서드 플랫폼 제작을 독려**

‘시민이 직접 기사를 평가하는 방법’, 특히 하는 매뉴얼(데이터 리소스 공유, 동영상 예시 등) 제작.